전남대 'AI 융합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운다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대학30'에 이름을 올리며 'AI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 성큼 다가섰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결은 AI 융합을 축으로 한 전방위 혁신과 인간 중심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전략에 있다.

광주·전남의 대표 국립거점대학인 전남대는 AI를 매개로 기술·인문·윤리를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기술에 문화·인문 소양 등도 겸비

교수·학사·수업·교육 등 4대 혁신

'AI for All @CNU' 프로젝트 추진

AI 수도 광주 연계…국가 경쟁력↑

전남대 AI융합대학 학생이 첨단장비를 활용한 AI 수업을 받고 있다. 〈전남대학교 제공〉

◇인간 중심 AI 인재 양성

전남대는 기술 중심의 교육을 넘어 문화·인문 소양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간 중심 AI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대학 구성원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광주시의 시정 목표인 'AI 수도'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AI융합대학을 통해 운영해온 ▲인공지능학부 ▲빅데이터융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등 첨단학과의 경험을 대학 전 학문 분야로 확산하고 모듈형 인문·테크 융합 AX 교육과정과 학·석·박사 연계 통합 과정을 도입한다.

◇교수·학사·수업·교육 4대 혁신

이번 사업의 핵심은 교수, 학사, 수업, 교육 등 전반에 걸친 4대 혁신이다.

교수 혁신 측면에서는 AI 코어·융합 분야 신임교원 50명을 새로 채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KT·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교원 대상 AI 재교육 프로그램(HAI-STEP)을 운영한다.

전남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수법 워크숍 44회, 연구모임 75회, 온라인 콘텐츠 15종을 운영하며 교원 약 2천900명이 참여했다. 또 'AI 재교육 특별 연구년제'를 도입해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학사 혁신으로는 AI 학과를 100% 무전공 선발로 운영하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바꾸는 학생에게는 졸업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대학 내에 AI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갖춘다.

수업 혁신은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HAI-클래스'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참여형 수업(IC-PBL)을 확대하고, 기업 연계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혁신에서는 전교생이 AI 윤리·철학·디지털 리터러시를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모듈형 AX 인문·테크 융합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기본·심화·고급 과정을 거쳐 마이크로디그리, 부전공, 석·박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마련해 전인적 AI 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계획이다.

◇'AI for All @CNU' 프로젝트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for All @CN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HAI-클래스'와 생애주기 맞춤형 플랫폼 '빛나래'를 구축해 학생은 학습·진로 혁신, 교수는 교수법 혁신, 직원은 행정 혁신을 지원한다.

전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합대학 전 학문 분야에 AI 융합교육을 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대학은 AI 융합교육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 학생을 미래형 인재로 길러내고, 교원에게는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연구 역량을 제공한다. 나아가 국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박현진 기자

市교육청,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박차'

광주학생예술누리터·光탈페 등

끼·재능 펼칠 프로그램·공간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중앙초등학교에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개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2관 문을 열었다.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즐기며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조성한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다.

1관이 초등학생 중심 체험 공관이라면 2관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공간에서는 ▲학교 연계 예술교육체험(9개) ▲지역 연계 예술교육체험(10개) ▲방과후 진로멘토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앙도서관과 동구 미로센터에 꾸려진 '야호 ZONE'은 학생들이 치유와 건전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7월 오픈한 '항로1216'은 독서, 진로는 물론 창작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유휴시설을 복합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3년 시작된 이후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학생 주도 오디션 프로그램 光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가 대표 사례다. 우수팀으로 선정되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학생 야외 버스킹은 시민들에게 음악, 춤, 태권도, 치어리딩 등 자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화체육예술 꿈나무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첫해부터 38개팀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참가팀이 56개로 크게 늘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학생의 재능과 끼를 키우고 나아가 '다양한 실력'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광주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K-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道교육청 '찾아가는 꼬마예술여행' 운영

여건 열악 어린이집 34곳 대상

내달 7일까지 프로그램 진행

전남도교육청이 도내 문화 체험 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꼬마예술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7일까지 전남 지역 어린이집 34곳, 35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에 진행한 0-2세 영아 오감체험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 대상을 3-5세 유아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꼬마예술여행'은 전문 강사가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가 오감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말랑말랑 슬라임놀이', '푸른바다 클레이놀이', '색색깔깔 물감놀이', '살랑살랑 낙엽놀이'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은 유아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형 놀이로 운영된다.

해남 동심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재료로 놀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지리적 여건으로 전문 강사 초청이 어려운 해남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어디서든 차별 없는 문화예술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예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